

M. 바실 페닝턴

토머스 머튼과 향심기도

자서전과 수많은 일기를 출판한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토머스 머튼은 천성적으로 자기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자서전과 일기는 '엄률 시토회(Cistercian Order of the Strict Observation)'라는 머튼이 속한 수도회의 악명 높은 검열자들뿐 아니라 머튼 자신에 의해서도 세밀하게 걸러진 글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여행에서, 우리는 그가 실제로 세 종류의 "일기(journal)"를 작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출판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고, 또 하나는 일종의 노트에 가까운 것이며, 세 번째는 가장 개인적인 것으로서 그 암호화된 기록은 오늘날까지도 읽으려는 사람들을 좌절시킵니다.

저는 언제나, 머튼의 가장 진솔한 모습을 알 수 있는 곳은 그의 편지라고 느껴왔습니다. 그는 훌륭한 편지 작가였습니다. 에벌린 위가 *칠층산(The Seven story Mountain)*의 영국판 교열자로 지명되었을 때, 그는 저자와 서신왕래를 시작하였습니다. 몇 통의 편지를 주고받은 후, 위는 이 젊은 작가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다른 글쓰기는 모두 그만두고 편지만 쓰게나." 안타깝게도 머튼은 1962년이 되어서야 체계적으로 편지 사본을 남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저처럼 지혜롭지 못한 서신교환자들은 초기의 중요한 편지를 보관할만큼 지혜롭지 못하였습니다.

머튼은 하루에도 비교적 짧은 편지는 열두 통, 긴 편지는 여섯 통까지 써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마음에서 손끝으로, 낡은 타자기의 키보드를 지나, 오타자 등이 있는 채로 수신자에게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편집도 없었습니다. 제가 감지한 또 다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머튼은 어떤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그 사람이 멀리 있을수록 -이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 더욱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머튼이 (루이빌 시내의) 4번가와 월넛 교차로 모퉁이에서 겪은 심오한 체험에 대한 이야기도 오직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에게 보낸 편지에서만 발견되는데, 이 서신은 러시아의 지하조직을 통해 전달되어야만 했으며 배달에 최대 6 개월이나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우리는 멀리 페르시아에 있는 수피 교도인 압둘 아지즈(Ch. Abdul Aziz)에게 보낸 편지에서 머튼 자신의 기도에 대한 가장 내밀한 설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
1. 원문에서 철자 띄어쓰기로 강조한 단어는 굵은 서체로 표기하였다, 기울임체, 쌍따옴표, 홑따옴표로 표기된 단어는 그대로 따라서 표기하였다.
 2. ()안의 글과 홑따옴표는 의미 전달을 위해 번역자가 추가한 것이 있다.
 3. ** 표기는 번역자가 의미 파악을 추가하기 위해 표기를 단 것이다.
 4. 인용된 토머스 머튼 신부의 글은 평문으로, 발표자인 바실 페닝턴 신부의 글은 경어체로 번역하였다.

이제 당신은 저의 명상(meditation) 방법에 대해 묻는군요. 엄밀히 말해, 저의 기도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느님의 현존(presence)과 그분의 뜻(will), 그리고 그분의 사랑(love)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느님의 현존을 알 수 있다는 그 믿음 위에 중심을 두고 있는 기도입니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나의 명상이 어느 예언자가 묘사한 바와 같이 “마치 하느님을 뵈는 듯 그분 앞에 머무는 것”과 같은 성격을 지녔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것을 상상하거나 하느님에 대한 구체적인 형상을 그려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 생각에 그것은 일종의 우상숭배와 같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방법은 우리의 이해를 무한히 넘어서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흠송하는 일, 그리고 그분이 전부(Him as all)**임을 깨닫는 일입니다. 저의 기도는 당신이 *파나(fana)***라고 부르는 것에 매우 가까이 기울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하느님이 아닌 모든 것이 철저히 무(無, 비실체성)임을 온전히 인식하려는 갈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기도는 ‘무(無, Nothingness)와 침묵(Silence)’의 중심에서 솟아오르는 찬미와 같습니다. 만일 이 “나”라는 존재가 여전히 인식된다면, 나는 그것을 장애물로 여깁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무(無)’를 완전한 투명성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 ‘무(無)’는 오히려 하나의 대상으로 남아 장애물이 됩니다. 이것이 평소 나의 기도, 또는 명상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분의 얼굴을 직접 찾아 나서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분 안에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고서는 그 얼굴을 찾을 수 없습니다.

향심기도(Centering Prayer)에 익숙한 이들이라면 누구나 이 글이 전통적인 관상기도로 들어가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음을 즉시 알아볼 것입니다. 즉 “전적으로 기도의 중심을 하느님의 현존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사랑에 주의를 기울이는데에 두는 것, 다시 말해, 하느님의 현존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믿음**을 그 중심에 두는 방법”을 말합니다. 향심기도의 본질은 첫째 핵심에 있습니다. 즉 우리 존재의 중심에 계시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를 향심기도를 가르치는 영성의 대가 토머스 키팅 신부님은 “우리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느님께 동의하는 지향”이라고 표현합니다.

출판된 여러 저서에서, 머튼은 자신의 내밀한 기도 체험에 관해 1인칭 단수(나)로 말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습니다. 또한 그는 “중심으로 간다(to the center)”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책자 “관상적 삶(The Contemplative Life)”에서는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다. 당신이 자기 영혼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 자신의 중심 가까이에 이르게 되면 피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당신 존재의 바로 그 뿌리에서, 당신은 하느님의 무한한 권능과

끊임없고, 직접적이며, 피할 수 없는 접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심에 계시는 하느님’이라는 관념은 머튼의 어린 시절 동안 거의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열 살 때, 아버지는 그를 데리고 생트-앙토냉(St. Antonin, France)으로 이사했습니다. 이곳은 미디(Midi) 지방의 중세 성지마을로, 1925년 머튼 부자가 이주했을 당시에 중세적인 특색을 많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성지마을이던 만큼 교회는 마을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고, 관점에 따라, 모든 길은 그곳으로 모여들거나 그곳에서 갈라져 나갔습니다. 교회와 그 안에 계시는 분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인상은 분명했습니다. 이십 년 후, 머튼은 이 인상, 즉 어린 소년에게 날마다 스며들던 그 인상을 기록했습니다.

... 모든 것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다.... 이 놀랍고도 오래된 마을에서, 집들과 거리들, 그리고 절벽과 나무로 이루어진 자연 자체의 배치가 내 시선을 오직 한 곳 — 교회와 그 안에 담긴 의미 — 으로 모아주었다. 이곳에서는 내가 어디를 가든, 주변 모든 사물의 배치 때문에 나는 적어도 잠재적으로는 언제나 교회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을의 모든 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마을 중심, 곧 교회를 향해 안쪽으로 뻗어 있었다. 마을 바깥 언덕에서 내려다본 풍경 역시, 높이 솟은 첨탑을 가진 그 길고 회색빛 건물을 중심에 두고 있었다.

믿음과 사랑의 기도

머튼이 압둘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밝혔듯이, 이 기도는 믿음이 기본적인 전제조건입니다. -- “... 이 것은 믿음이 중심이 됩니다, 이 믿음으로만 하느님 현존을 알 수 있습니다.” 중심을 향한 여정은 믿음의 여정이며, 믿음은 성경과 전통이라는 두 원천으로부터 비롯되고, 이 두 원천의 안내를 받습니다. 아주 드물지만, 머튼이 나눈 꿈 이야기 하나에서 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느 큰 도시에서 길을 잃고, 어디를 가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중심을 향해’ 걷고 있는 꿈을 꾸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막다른 곳에 이르렀는데, 높은 곳에 서서 넓은 만, 곧 향만이 안쪽으로 들어온 물길 하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눈이 살짝 덮인 언덕들 위에 펼쳐진 도시의 한 구역을 바라보면서, 비록 갈 길은 멀었지만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 도시는 향만이 두 갈래로 있어 어디를 가든지 그것들을 마주치게 되고, 그것들이 길을 찾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향만의 두 갈래는 성경과 전통입니다. 이 둘이 우리를 인도해주고 있는 한, 우리는 “중심을 향한” 여정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찾기 위해 매일 두 원천으로 돌아갑니다.

중심--곧 하느님을 체험하는 자리--로 가는 길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부터 하느님 현존

을 감지하는 우리의 능력이 나옵니다. 머튼은 이 사랑의 첫 움직임이 향심기도에서 어떻게 경험될 수도 있는지 이어서 설명합니다.

일종의 '경험 이전적 관상 (전(前)경험적 관상)'이라는 것이 있다. 영혼이 이유도 모른 채 그저 어둠 속으로 뛰어들며,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향하여 눈먼 채로 이끌리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나중에 되어서야, 영혼이 더듬더듬 찾아가던 그 "어떤 것(something)"이 단순한 하느님에 대한 생각이나, 그분과 일치(union)하고자 하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실재로는 하느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강렬하고 주관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투신에는 용기가 필요하며, 은총의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다는 것은 오직 경험함으로써만 비로소 알게 된다.

머튼은 초심자에게 이런 격려의 말을 건넵니다.

만족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은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죄인인 우리 안에 당신의 거처를 정하러 오셨습니다. 이미 그분이 현존하고 계신 그곳을 향하여 완전히 돌아서는 것 외에는 더 찾을 것이 없습니다. 고요히 머물러 그분이 하느님이심을 아십시오.

당신 자신의 침묵을 감히 뚫고 들어가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당신 마음의 고독 속으로 과감히 나아가며, 당신을 통해, 당신과 함께 하느님을 찾고자 하는 다른 외로운 이와 그 고독을 나누고자 한다면, 당신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 너무 가까워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빛과 능력을 참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영과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의 자아가 마음의 심연에서 맺는 친밀한 일치이며, 그리하여 당신과 하느님이 참으로 '한 영(One Spirit)'이 되는 것입니다.

향심기도(Centering Prayer)의 첫 번째 움직임, 그리고 사실상 기도의 핵심은 우리 존재의 깊은 곳, 우리 존재의 중심에 거주하시는 하느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머튼은 이 믿음의 움직임을 설명하면서 명료하면서도 중요한 구분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안으로 들어가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그 안의 내적 "자아"(inner I)를 넘어서 나아가갈 때, 우리는 전능하신 분의 "나는 존재한다(I am)"를 맞닥뜨리는 광활한 어둠 속으로 나아가게 된다.... 우리의 가장 깊은 "나"(inmost I)는 하느님 안에서 존재하며, 하느님께서 그 안에 거하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체험하는 것과, 하느님께서 우리의 내적 자아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인식을 구별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 우리는 거울과 그 안에 비친 형상이 서로 구별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차이는 신학적 믿음에 기초한다. 우리의 내적 자아에 대한 자

각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순수하게 자연적이고 심리적인 정화가 낳은 열매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느님에 대한 자각은, 그분이 우리의 가장 깊은 자아 안에 거주하시며 내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실 때, 그분의 빛에 참여하게 되는 초자연적 체험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신비 체험은 단순히 내적 자아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초자연적으로 강화됨으로써,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경험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체험이다.

이러한 점을 가장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우리 안에 현존하시며, 눈에 보이게 우리 앞에서 계시는 것보다 더 친밀하게 우리 안에 계신다. ...복음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더 이상 공허한 진공으로 보지 않고 **무한한 깊이**로, 단순한 비어있음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의 전환은 우리가 자신의 무(無)에 대해 두려워하고, 두려움 자체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지루함에 대한 두려움을 여전히 품고 있는 한, 이러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거룩한 태도란 우리 자신의 내적 공허 앞에서 뒷걸음치지 않는 태도이며, 오히려 경외와 신비에 대한 자각을 지니고 그 안으로 침잠해 들어가는 태도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전부이며,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적 깊이의 하느님께로 움직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단순히 그곳에 머무르고, 그 실재 안에 쉬게 됩니다.

침묵, 희망, 기대, 알지 못함(unknowing)의 자리 안에서, 믿음의 사랑은 자신을 신적인 의지에 온전히 내어 맡긴다. 그분의 의지를 마치 신비로운 암호 명령을 풀이해야만 하는 자의적이고 마법적인 힘으로 여기지 않고, 실재(實在)와 생명 자체의 흐름으로 여기며 온전히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거룩한 태도란, 실제(實際, 현실, real)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든 그것에 대한 하나의 깊고도 근원적인 존중의 태도이다.

이 기도 안에서는, 하느님께서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진정으로 내어맡기고 또 받아들이는 태도를 지닙니다. 그렇다고 죽은 듯이 수동적이란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믿음과 희망의 생생한 현존이 있습니다.

일어난 것은 그냥 일어난 것일 뿐이다.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되, 어떤 추론을 한다거나 다른 경험들과 비교하려 들지 않고 그저 바라볼 뿐이다. 그리고 하느님 현존 안에서 계속 걸어간다.... 관찰가가 되려는 이는 마음이 스스로에게 삼켜져 버리는 무겁고 무기력한 혼침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신의 어둠 속에 머무르는 것은 관찰이 아니며, 마음의 작용을 “막거나” 자신의 무(無) 속에 그냥 “머물러 있으려”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자기 무(無)로부터 믿음과 희망으로 걸어 나와, 하느님 안에서의 자유를 찾아야 한다.

이 기도의 가장 중심은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내어맡김과 우리의 초월 방식을 이끌어 줍니다. 머튼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자기 자신을 실재(實在, reality)에로 인도받도록 해야 한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감각에 따른 증거나 이성적 이해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희망이나 기쁨, 두려움이나 욕망, 슬픔에 찬 개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뜻(will)하시는 것과 그 뜻에 따른 것 외에는 어떠한 인간적, 세속적 만족도 구하지 않는 “어둠 속의 믿음(dark faith)”에 의해 인도받도록 해야 한다.

이 완전한 내어맡김은 단순히 환상적인 지적, 신비적 도박이 아니다. 이것은 매우 진지한 것이며, 보이지 않는 그분(Person)에 대한 사랑의 행위이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실재에 우리 자신을 내어맡기게 하는 바로 그 사랑의 선물 안에 계시며,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현존케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정신(mind)과 영(spirit)과 삶(life)이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말씀과 하나로 일치되는 일은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것은 ‘하느님이 주시는 사랑의 덕(charity)’ 안에서 이루어지는 접촉이다. 분명 그렇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무지(無知, 알지 못함)의 어둠’ 안에서 이루어지는 접촉이다. 이 점은 필연적으로 다음 사실로부터 드러난다. 즉 이 접촉은 지성적인 상징과 의도를 넘어서는 것이며, 어떤 창조된 이미지나 마음의 표상을 매개로 하지 않고 하느님께 직접 이른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무지의 어둠 속에서 작동하는 바로 그 사랑에 의해 우리 전 존재의 태도(disposition)가 형성되며, 이 사랑은 우리를 하느님과 닮게 하고 그분께 일치시키어, 우리가 마치 그분이 곧 우리 자신인 것처럼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을 통하여, 그리고 그 안에서, 신비적으로 그분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이제 내적 자아는 ... 객관적인(objective) 이미지라는 매개를 통하기보다는, 신화된 자기 주관성(subjectivity) 안에서 하느님을 알게 된다.

머튼이 이 체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약간의 양면성이 있는듯합니다. 그는 정말 이것을 매우 특별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용기와 충실함을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험은 모든 이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 아버지의 아들과 딸 모두가 갖는 공통의 유산입니다.

하느님 현존 안에 고요히 머물기, 그분을 경청하기, 그분께 주의를 기울이기, 이런 일에는 큰 용기와 수행 감각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청과 주의를 기울이는 일은 매우 높은 양식의 금욕적 수행이며,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 이 경청 안에서는, 하느님께 고요한 주의를 기울이는 가운데서, 하느님께서 기도하는 이에게 직접 작용하시며,

당신 자신이 활동하시며, 영혼에게 직접 소통하시며, 다른 수단을 통하지 않고, 천사나 사람 이미지나 형상을 거치지 않고, ... 하느님과 그분이 사랑하시는 이는 깊은 친교 안에 있게 된다.

그러나 믿음과 사랑의 이 여정의 끝에서—이 여정은 우리를 우리 존재의 깊은 곳으로 이끌고, 우리 자신을 넘어 하느님께로 나아가도록 풀어준다. — 신비적 삶은 모든 설명을 초월하는 하느님의 현존 체험에 이르게 된다. 이 체험은 영혼이 완전히 “하느님 안에서 변형되어”, 말하자면 그분과 “한 영(one spirit)”이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메시지, 곧 우리를 잠에서 깨우고, 유배에서 돌아오게 하며,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자아를 발견하도록 부르시는 그분의 초대일 뿐이다. 그 참된 자아는 곧 그분의 성전이며 그분의 하늘이고, (탕자의 귀향 여정의 끝에서 이르듯) 그분의 “아버지의 집”이다.

그러므로 머튼이 관상적 체험—곧 관상기도—이 선택된 소수만이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관상이 실재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해 왔을 뿐 아니라, 그것의 단순함과 절제됨과 겸손함, 그리고 **평범한 그리스도교인의 삶** 안에 통합되어야 함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바로 이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 누구나 이러한 충만함, 실재의 체험, 진리로의 진입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은 분명히 정당하다.

토대 - 관상기도에 이르기 위한

머튼은 힌두교와 불교 전통의 명상 방법을 인상 깊게 바라보며 호기심을 가졌던 만큼이나 직접 경험을 해보고 싶었으나, 어떠한 수행법도 하나의 전통 전체를 충실히 살아내지 않고는 결실을 맺을 수 없다고 깊이 확신했습니다. 초기 교부들의 ‘**단일 문구 명상**’(모노로기온, monologion) 전통을 따르는 향심기도 같은 그리스도교 관상적 수행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는 진실한 노력을 전제(前提)합니다. 여기에는 보다 피상적인 차원의 자기를 부정하고, 믿음 – 심지어는 어둠 속의 믿음 -으로 살아가려는 의지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그리스도교 신비 전통에 따르면, 외적 자아의 분주한 관심사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은 자신의 내적 중심을 발견할 수 없고, 그곳에서 하느님을 알 수도 없다. 우리 존재의 내적 성소로 들어가는 자유는 자기 만족과 감각적 충족에 대한 의존에 매달려 있는 이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 그것이 쾌락 추구이든, 편안함에 대한 애착이든, 분노에 쉽게 기우는 경향이든, 자기 주장, 교만, 허영, 탐욕 등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이다. 믿음이란...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것임과 동시에 하느님의 피조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다. 곧 보이는 것을 가려

냄으로써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한 것이다. 이 두 가지 개념은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단지 감각적인 것들을 차단하는 것은 믿음의 아니며, 믿음이 생기게 하는 수단이 될 수도 없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믿음은 지극히 찬란한 빛이어서, 지성을 눈부시게 하고 다른 모든 실재에 대한 시야를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가 이 새로운 빛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그 빛 안에서 변모되고 고양된 모든 실재를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

앞서 머튼의 꿈에 대해 나누며 언급했듯이, 이러한 믿음은 성경과 전통이라는 원천들과의 접촉을 통해 양육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방식의 lectio(렉시오), meditatio(메디타티오), oratio(오라티오), contemplatio(콘TEMPL라티오)**, - 즉 관상에 이르는 도록 이끄는 거룩한 독서, 묵상과 기도입니다. 머튼은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독서를 분석적으로 하기보다, 자기 고유의 생각을 따라가는 데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그저 **생각 위로 솟구쳐 현존과 활동이라는 직관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진리의 신비 안으로 깊이 파고들기 위해**, 저자의 사고 흐름을 따라가는 것을 그만둘 때, 독서는 관상이 된다. 우리는 사고의 능력, 곧 존재의 “한 부분”으로 묵상한다. 그러나 관상은 우리 존재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 존재”로 행해진다.

이 점은 우리가 향심기도로 나아갈 때 마주칠 수 있는 한 가지 장애를 시사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근원인 믿음을, ‘믿음의 독서’로 길러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길러주었던 그 믿음의 개념들에 매달릴 수 없습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 믿음의 대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들을 내려놓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무지의 구름’ 안으로 이끌며, 바로 그곳에서, 오직 그곳에서만, 우리는 이 생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영은 하느님이 자기에게 전혀 보이지 않는 분임을 깨달음으로써, 비로소 하느님을 제대로 보게 된다. 느닷없이 깊고 전적으로 그분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아차리게 되었을 때, 영은 개념적 묵상의 마지막 흔적까지도 멀리 던져 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영은 자기와 하느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영적 장애물에서 벗어난다. 생각들(thoughts), 자연적인 빛(natural light), 영적 이미지들(spiritual images)**은 말하자면, 영이 신적 존재를 직접적이고 별거벗은 감각으로 접촉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막이자 가리개이다. 이 장막들이 걷혀질 때, 신비적 어둠 안에서, 나는 하느님을 ‘만질 수 있게’ 되며, 아니 오히려 하느님께 ‘만져질 수 있게’ 된다. 직관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마지막 도약으로 그분께 이르고, 황홀경 안에서 영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그분의 초월적 현존에 자신을 내어맡긴다. 이 황홀한 ‘알지 못함’의 행위 안에서, 주체로서의 우리 영과 객체로서의 하느님 사이의 간극은 서로 맞닿게 되어, 신비적 사랑의 포용 안에서 우리는 우리와 그분이 하나임을 알게 된다.

참으로 하느님을 찾기 위하여

하느님과 이 일치를 가로막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애는, 우리가 체험되어지는 하느님 또는 체험되어질 하느님을 찾기보다, 하느님 체험 자체를 찾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을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이 나머지, 그것이 영혼보다 더 중요해지고, 하느님 보다 더 중요해지는 데 있다. 우리의 영적인 체험이 '대상화'되고, 마침내 하나의 '우상'이 되어 버린다. 그것은 하나의 어떤 "것(thing)"이 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의 "실재(reality)"가 된다. 우리는 그 어떤 "것"을 섬기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며 그 어떤 "것"이 될 수도 없는 분, 곧 하느님 만을 섬기도록 창조되었다. 어떠한 "대상(object)"도 아니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자유이다. 영적인 체험을 위해 사는 것은 노예 상태이며, 그러한 노예 상태는 - 아무리 고상해 보일지라도 - 돈이나 쾌락, 성공과 같은 그 어떤 "것"을 섬기는 삶과 마찬가지로 관상적 삶을 세속적인 것으로 만든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체험을 찾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느님을 찾지 않고, 더 이상 하느님을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자아(ego) 안에 머문 채, 즉 자기자신에게 집요하게 매달린 채,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을 끌어내어 그것들을 자기의 유한하고 이기적인 삶 속에 편입시키려 한다면, 기도는 여전히 노예 같은 예측적인 상태에 머물게 된다. 노예 같은 예측성은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데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예측성은, 역설적이지만, 하느님을 우리의 욕구에 봉사하도록 만들려는 데에 있다. 우리는 현대인에게, 진정한 기도가 어떻게 노예 같은 예측 상태에서 벗어나 하느님 안의 자유로 이끄는지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참된 기도는 미신적인 "거래(deals)"를 통해 하느님을 조종하려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 추구하고 정당한 기대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발견합니다. 사랑은 그 본성상 사랑하는 이와 의 일치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참된) 추구는 사실 응답이며, 사랑의 응답, 곧 사랑 그 자체가 지닌 갈망입니다.

기본적인 원칙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언제나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만 하는 '그 무엇(something)'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무엇'을 **능동적으로 기대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관상적 삶의 비결은 이 **능동적으로 알아차리는 능력**에 있다. 즉 영혼의 여러가지 능력을 넘어서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깊은 인격적 응답으로서의 능동적이고 기대에 찬 알아차림이다.

자기 자신, 곧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은, 중심을 잡는 데에, 곧 하느님 안에 중심을 두는 데에 장애가 됩니다. 그것은 사랑 안에서 하느님을 향해 존재하는 것의 정반대입니다. 하느님을 향한 존재 방식은, 타인들 또한 하느님 안에 있기에, 필연적으로 사랑 안에서 타인을 향하여 존재하게 됩니다.

타인의 권리와 필요를 외면하는 사람은 누구든 관상의 빛 안에서 걸어들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없다. 그의 길은 이미 진리에서, 자비에서, 그리하여 하느님에게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장애는 우리 안의 "자아(self)", 곧 분리되고 외적이며 이기적인 의지를 집요하게 유지하려는 자아에 있다.

머튼 자신이 그의 가장 뛰어난 저작 가운데 하나로 여겼던 『새로운 관상의 씨앗들(New Seeds of Contemplation)』에서, 그는 이탤릭체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은 순수한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벗어나 스스로를 비우고 타인에게 자신을 내어줄 수 있지 않는 한,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중심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중심을 통과하여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다.

머튼은 그의 여러 저작에서, 중심에서 벗어나 살고, 존재의 실재에서 벗어나 살아갈 때 나타나는 슬픈 결과들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무엇을 하는가(doing)'에 사로잡혀 있어, **그저 존재하며(being)** 살아갈 여유조차 잃어버렸고, 그저 존재함을 받아들이는 상상력**마저 남아 있지 않다. 그 결과 인간은, 그가 어떤 존재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가**, 혹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말해 그의 쓸모 있음에 따라 평가된다. 인간이 하나의 기능으로 전락할 때, 그는 예속되고 소외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는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거나, 더 나쁘게는 어떤 '것'을 위해 존재하게 된다. 도덕적 궤도의 중심으로서 하느님을 포기한 이들은 모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바로 그로 인해 자기 존재의 존엄을 잃고 스스로의 인간됨을 저버리게 된다.

중심이 바르게 자리 잡을 때의 효과

관상의 효과, 곧 향심기도**의 효과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관상적 체험은) 올바르게 받아들여질 때, 그에 합당한 고유한 효과를 낳는다. 곧 하느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동시에 단순해진다.

이러한 관상적 사랑은 자유와 창조성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안의 '무(無)' – 그것은 동시에 우리의 자유가 (비워짐 속에서) 존재로 솟아나는 자리이기도 하다 – 는, 우리의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 향해 있지 않는 한, 하느님의 현존과 빛으로 은밀히 채워진다. 그 때 우리의 자유는 하느님 자신의 자유와 일치(united)가 된다. 그 무엇도 사랑의 활동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창조성을 가로막을 수 없다.

관상적 통찰은 우리의 온 마음을 사로잡는 하느님의 아름다움과 그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드러내 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의 아름다움 까지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 줍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 안에서 우리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머튼은 자신의 체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내가 갑자기 그들의 마음의 비밀스러운 아름다움을, 죄도 욕망도 자기인식도 닿을 수 없는 그들 마음의 깊은 자리를, 그들의 실재의 핵심을, 하느님의 눈에 비친 그들 각자의 인격을 본 것만 같았다. 그들 모두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서로를 언제나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그러면 더 이상 전쟁도 없고, 증오도 없고, 잔인함도 없고, 탐욕도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가 관상적 체험 안에서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의 삶 안에 매우 현실적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체험이 참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입니다. 우리의 관상은 삶 전체로 흘러넘쳐, 창조적으로 우리의 환경에 어떤 성스러움을 가져옵니다. 이미 그곳에 있는 거룩함을 보도록 우리의 눈이 열렸고, 우리는 그에 따라 나아가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심의 고독 주변으로 명상하고 기도하는 하나의 우주가, 이 우주 밖의 또 하나의 우주가 퍼져 나간다. 그것은 곧 하느님과 이러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인간의 현존으로부터 생겨난 신성한 우주이자 하나의 빛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그리하여 관상은 하나의 지속적인 태도가 됩니다. 그것은....

생명과 존재의 거룩함 앞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경외이며, 존재함에 대한 감사이다. 그것은 우리 안의 생명과 존재가 보이지 않으면서도 초월적이며, 무한히 충만한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깨닫는 것이다. ... 무엇보다도 그것은 그 근원의 실재에 대한 알아차림이다. ... 그 근원의 실재를 알아차리고 깨닫는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렴풋이 믿고 있는 말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를 체험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몇 가지 인용구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향심기도를 잘 수련하고 더 잘 이해하는데 있어 토마스 머튼의 저작들이 얼마나 풍요로운 원천이 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토마스 머튼 자신의 기도 중 하나로 이 글을 맺고자 합니다.

제 마음속에 '아들 됨의 침묵(silence of Sonship)**'을 품고 이곳에 머무는 것은, 모든 만물이 당신께로 수렴되는 하나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분명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저를 이 침묵 속에 머물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침묵으로부터 당신의 평화의 말씀과 자비의 말씀, 그리고 세상을 향한 당신의 온유한 말씀을 배우게 하소서. 또한 저를 통하여, 오랫동안 아무도 들을 수 없었던 곳에 당신의 평화의 말씀이 들리게 하소서.

M. 바실 페닝턴, 엄룰시토회

복되신 성모 마리아의 성 요셉 수도원

스펜서 MA 01562

- 이 글의 원문은 "Studio Mertoniana 2 (2003)"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이 글을 인용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 또는 전재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If you are quoting this article or replicating or reprinting some or all of it, you must identify the source.)
- 이 번역본은 번역자에 의해 언제든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